



3면·16면

도내 유권자들 투표소에서 한 표 행사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음 3월 3일) 제34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겼다”... 환호성 터진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주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출구조사를 시정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희승(남원장수읍실무주)·이성운(전주)·윤준병(정읍고창)·정동영(전주)·이춘석(익산)·한병도(익산, 전북자치도당 위원장)·김윤덕(전주)·신영대(군산김제부안)·이원택(군산김제부안)·안호영(완주진안무주) 후보.

민주 전북 후보 10명 당선 확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 후보자들 10명의 당선이 확정됐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0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선거구별 개표 진행 결과(오후 9시 현재),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의 득표율은 77.40%이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12.39%,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는 6.44%, 무소속 방수형 후보는 3.75%의 득표율을 얻고 있다.

전주을(오후 9시 15분 현재)은 민주당 이성운 후보가 68.93%로 득표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18.91%,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11.09%를 얻고 있다.

전주갑과 전주을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지역 격전지로 꼽히는 선거구로 알려져 있다. 김윤덕·신원식·이성운·정운천·강성희 등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뛰고 있는 선거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도내 정가는 예상하고 있다. 별

‘국민의 선택’ 4·10 국회의원 선거

도내 10개 선거구 모두 60~80%대로 압승... 환호성 터져

尹 심판·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SOC 예산 삭감 등 주요인

다른 이변은 없었다.

전주병 민주당 정동영 후보 득표율은 현재(오후 8시 30분) 79.52%이다.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와 녹색정의당 후보는 각각 14.65%, 5.81%이다.

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85.18%의 득표율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는 14.81%를 얻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도 87.21%로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익산갑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78.40%의 득표율로 앞서고 있다.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는 8.84%,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는 4.04%, 진보당 전권희 후보는 8.70%를 얻고 있다.

익산갑은 29세 청년 후보자의 등장으로 전북에서 주목받게 된 선거구로 알려져 있다.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86.41%의 득표율로 앞서고 있다.

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후보의 득표율은 87.13%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남원임실순창 민주당 박희승 후보는 85.80% 득표율로 앞서고 있다. 끝으로 완주진안무주 민주당 안호영 후보는 83.22%로 당선이 유력해진 상태다.

전북 정가는 도내 많은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택한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폭주에 대한 심판,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 예산의 삭감에 대한 분노, 침체된 경제 회복, 정권 교체와 지역 균형발전

을 꼽았다.

이날 오후 6시경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전주갑 김윤덕 78.1%, 전주을 이성운 63.1%, 전주병 정동영 79.1%, 군산·김제·부안 갑 신영대 81.2%, 군산·김제·부안 을 이원택 78.4%, 익산갑 이춘석 73.6%, 익산을 한병도 83.3%, 정읍·고창 윤준병 85.5%,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82.4%, 완주·진안·무주 77.6%로 우세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후보자 10명 모두가 제22대 국회(재)입성이 성사되면서 전북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인 한병도 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출구조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념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앞장서 전북이 다시는 출대를 받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전북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특별취재반

4·10 총선 전북 67.4% 마감 지난 총선보다 0.4%p 높아

시군별로 장수가 74.1%로 투표율 가장 높아

전북지역 역대 총선 중 최고의 투표율 보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10일 전북지역 투표율은 6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북 총 투표율 67.0% 대비 0.4%p 높은 수치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151만7,738명의 유권자 중 총 102만 2,6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북자치도내 주요 시군별 투표율을 보면 장수가 74.1%를 보이며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뒤이어 순창 73.3%, 진안 73.1%, 임실 72.7%, 무주 71.3%, 남원 70.6%, 고창 70.5%, 부안 68.8%, 김제와 전주덕진이 각각 68.2%, 완주 67.8%, 전주 완산 67.2%, 정읍 67.0%, 익산 65.7%, 군산 63.3% 등 순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전북지역에서 역대 총선 중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 21대는 67.0%, 20대 총선 62.9%, 19대 총선 53.6% 등을 기록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 중 최고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사전투표일부터 엿볼 수 있었다.

지난 5일과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북에서는 38.46%의 사전투표율이 나왔다. 이 수치는 지난 21대 총선 전북지역 사전투표율 34.75%보다 3.71%p 더 높은 수치다.

이번 투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새만금 SOC 예산 삭감·윤석열 정권 심판론 등 현 정부에 대한 분노, 전북현대를 이겨내고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도내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피어나다 남원

춘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남원 춘향제**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